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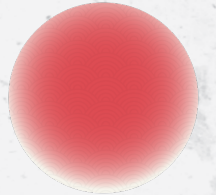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7편 1-5절은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족을 돌보고 계획을 세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무의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우리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받쳐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수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범죄하고 쓰러집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맞서 승리할 수 있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요, 가정의 복임을 알려줍니다. 자녀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자녀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첫자리에 세우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고, 자녀에게도 하나님 사랑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2026 설날 가정에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배로 부름 / 인도자

설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 96:1-2)

찬송 / 552장(통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 말은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설 명절에 다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참아 주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먹을 양식과 따뜻한 거처와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며, 항상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도 살피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시편 127:1-5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설교 /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집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찬송 / 559장(통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의 말씀 /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